

한라시론



성주엽 생각하는 정원 청소부

생각하는 정원은 단순히 분재원, 또는 식물원이라 표현하기 부족하다. 생각하는 정원은 1968년부터 부친이 향무지를 개척해 설계도면 없이 오로지 관찰과 구상으로 조성한 제주형 한국정원이다. 정원 곳곳에는 정원을 관리하면서 얻은 나무가 주는 지혜와 그로부터 깨달은 철학을 세밀하게 기록한 역사설명서들이 자리하고 있다.

부친은 생각하는 정원을 위해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모든 혼혈을 쏟아 부어 정원을 만들어내셨다. 한국과 제주다움을 통해 Unique, Creative,

정원 청소부의 사명

Excellent한 정원을 만들어 세계로부터 탐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주와 한국을 빛내셨다. 정원에 잡재된 콘텐츠와 에너지를 담겨있다. 부친 곁에서 30년을 지켜봐오던 나에게는 이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것, 전해야 할 것들이 보였다. 이를 꺼내 알려야 하는데 그동안 능력도 부족했고 상황도 여의치 못했지만 시대정신을 담아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만큼은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다.

진정한 정원은 정원이 영혼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나였기에 생각하는 정원의 소명과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 정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앞으로 나아가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라고 느꼈다. 핑계와 여건을 탓하며 미뤄왔

던 일들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오히려 잠재돼 있던 힘이 깨어난 것 같다.

자연을 통한 사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한 역동적인 사색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생각되는 정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무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웰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의 단절과 감염병지를 위한 통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유와 명상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열정은 때로 지나침이 돼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한다. 치유의 핵심은 '쉼'과 '느리게'이다.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은 Rest와 Slow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래하는 그릇 (Singing

Bowl)'이라는 명상도구를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정원과 접목시켰다. 한국 최고 권위를 가진 (사)한국싱글합창회와 협력해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의 핵심은 '현지(local)'이다. 정원 곳곳에 제주다움을 육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더 나아가 생각하는 정원의 정체성을 담은 사색, 관광,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가 주는 혜택은 치유이다. 또한 정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색과 치유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생각하는 정원의 본질과 역할을 생각해볼때 방향을 찾고자 했다.

코로나 19로 많이 힘들었던 모든 분들이 나무와 정원을 통해 치유와 힐링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사설

경영 낙제점 지방공기업, 존재 이유 있나

제주도 지방공기업들의 경영 성적이 초라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다. 광역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중인 제주도상하수도 본부는 전국 최하권인 라등급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제주에너지공사·제주관광공사 역시 하위 등급이다. 5단계(가-마) 등급으로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도내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말해준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공기업에 달린 꾸짖은 것이 아니다.

좌 의장은 엇그제 제39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행안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제주도 공기업들이 모두 하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좌 의장은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포집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좌 의장의 지적처럼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지방공기업 경영 자료를 보면 놀라게 된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3곳에 대한 재정 지원액이 600억원이 넘는다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가. 지방공기업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려고 지방공기업을 만들었나. 비단 지방공기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1539억원이 지원됐다. 때문에 도의회도 이들 기관에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설립 취지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제주도는 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더 늦춰선 안된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절차가 열달만에 재개돼 '순항'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말 국립공원 변경 절차의 핵심이라 할 공청회·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다시 수정된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서다. 환경부가 아직 수정된 계획을 공개않아 일부 반발을 예상된다. 이번엔 제주 환경가치들을 제대로 보전한다는 대응적 차원에서 절차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환경부는 이달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알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오는 30일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제주도·서귀포시에서 예정된 공청회·설명회 일정이 반대 주민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된 지 열달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그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두 차례

나 수정을 거친 바 있다. 당초 환경부서 한라산 면적 확대에 오름 곳자할 해양 등을 더해 610km로 제안했다가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지역 제외 후에도 동부 오름군락, 중산간 곳자할 사유지까지 추가 제외돼 303km로 축소된 상태다. 환경부가 이번엔 송악산과 마라도, 중산간 시험림 등을 빼 288.5km로 재차 축소한 계획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여론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환경부와 도는 이번 설명회를 주민들 우려 해소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개발행위로 심각한 훼손을 막고, 청정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국립공원 확대 절차를 더 늦춰선 안된다. 지금도 계속 훼손되는 제주자연을 방관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자연엔 안통한다. 그야말로 한번 훼손되면 끝인 게 자연이다.

편집국 25시

제주 관광업의 양극화



이태운 경제산업부 차장 ty9456@halla.com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 소비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도내 관광 업종의 양극화 현상은 진행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이후 관광객 소비는 렌터카, 특급호텔 등 고비용의 개별여행에 관련된 특정 업종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지만, 전세버스업과 여행사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신용카드 매출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제주관광 소비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금액은 1조30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434억원과 비교해 55.2% 늘어

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조955억원과 비교해서도 19.5% 더 많은 것이다. 이중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금액은 1조2648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제주 전체 소비(3조2649억원)의 38.7%를 책임졌다.

코로나19 이후 개별 관광객의 체류일수가 늘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1인당 지출비용이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광 소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소비는 렌터카,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등 고비용의 개별여행에 관련된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여행, 숙박 관련 업종 중 렌터카, 특급호텔, 콘도미니엄은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19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였고, 4-5월 렌터카는 2019년 대비 각각 140%, 123%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버스,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2019년 소비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in

"갈등 소지 있는 사업 현장 점검 중요"

광동계약 삼다수 판권 3연승

○...광동계약이 제주삼다수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선정 경기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3연승 달성에 성공.

광동계약은 8일 제주개발공사의 도외지역 삼다수 위탁 판매를 담당할 동반협력사 공개 모집에서 다른 3개 경쟁사를 물리치고 최종 선정돼 3회 연속 도외유통 판권을 수상.

광동계약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삼다수 도외 소매점 유통권을 따낸 이후에 재계약 등을 거쳐 10년 가까이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전담해 온 노하우로 소매점은 물론 온라인 영업력까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고대로그자

주민 소통 사업 추진 강조

○...최근 제주시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안동우 시장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추진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

안 시장은 8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법령 및 규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답사 등의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처리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서 확인한 문제-관련 사항을 사업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 이윤형기자

경제 활성화 위한 신속 집행

○...당초보다 1003억원이 증액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계약 한도 금액 향상, 집행 관련 각종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신속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극대화하겠다"고 피력. 오은지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순여(로사·향년 94세)께서 2021. 8. 28. 미국에서 선종하시어 그 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머리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1년 9월 9일
아들 강동식 (미카엘) 010-8660-4321
며느리 주경자 (레지나) 010-8661-832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석하(향년 6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9월 9일
부인 허순하
아들 양치영 며느리 김명임
딸 양진영 사위 김남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후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국병원, 한라제약, 국내보청기(국제7개점),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제리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서라향(전해향)
과수능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선,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금당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